



푸른 나무 시리즈

“11.5”국가중점도서출판규획프로젝트

폴스또이

문학대가시리즈



민족출판사

폴스또이

문학대가시리즈

◎ [로] 폴스또이 저

◎ 김은희 역



민족출판사

이 책은 중국소년아동신문출판총사, 중국소년아동출판사 2006년 4월 제1판 2006년 4월 제1차 인쇄본에 의하여 번역출판한다.

민족출판사 출판발행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2008년 7월 제1판 2008년 7월 북경 제1차 인쇄

절지: 787mm×1092mm 1/16

전지: 7.5 값: 12.00원

ISBN 978-7-105-09530-8/I • 1950(조207)

편집실전화: 58130534; 발행부전화: 64211734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托尔斯泰：朝鲜文 / (俄罗斯)托尔斯泰(Tolstoy, L.N.)
著：金银姬译. —北京：民族出版社，2008.7
(托起明天的太阳. 文学大师启蒙读本)
ISBN 978-7-105-09530-8

I. 托… II. ①托…②金… III. 短篇小说-作品集-俄罗斯-
近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512.4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8)第115256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北京盛通印刷股份有限公司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8年1月第1版 2008年1月北京第1次印刷

开本：787毫米×1092毫米 1/16

印张：7.375 定价：12.00元

ISBN 978-7-105-09530-8/I · 1950(朝207)

朝文室电话：58130534； 发行部电话：64211734

차례

곰 세마리 / 001

쥐처녀 / 006

늑대와 할머니 / 011

두 상인 / 013

포도밭주인과 아들 / 017

곰이 마차를 타다 / 019

황제와 농부 / 022

말 두마리 / 026

사자와 강아지 / 028

똑같은 유산 / 034

세 도적 / 037

해오라기, 물고기와 새우 / 041

고슴도치와 토끼 / 044

형과 동생 / 048

물뱀 / 053

똥스또이
문학대가시리즈

차례

- 059 / 국왕과 사냥매
061 / 장님과 우유
063 / 늑대와 활
065 / 거위 나누기
069 / 지혜로운 재판관
077 / 왕과 옷
080 / 두 친구
082 / 아버지와 아들
088 / 사자, 늑대와 여우
091 / 농부와 물요정
094 / 어린 소녀가 어른보다 총명하다
099 / 닭알만한 씨앗
106 / 사자와 쥐
108 / 모기와 사자
110 / 사자와 여우



곰 세마리

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는 숲속이 매우 궁금했어요. 그러던 어느날, 그는 숲속에 놀러 갔다가 그만 돌아오는 길을 잃고말았어요. 길을 찾던중 그는 집 한채를 발견했어요.

이 집에는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이 살고있었어요. 그들이 마침 산책을 나갔기에 여자애가 왔을 때는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보니 탁자가 있었어요. 탁자에는 작은 사발, 큰 사발, 아주 큰 사발이 있었고 그옆에는 각각 숟가락이 있었어요. 이 세 사발들은 각각 아기곰, 엄마곰, 아빠곰의것이였어요. 여자애는 아주 큰 숟가락으로 아주 큰 사발에 있는 죽을 떠먹은후 또 큰 숟가락으로 큰 사발에 있는 죽을 떠먹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작은 숟

가락으로 작은 사발에 있는 죽을 떠먹었어요. 그중에서 작은 사발에 있는 죽이 가장 맛이 있었어요.

거실에는 작은 의자, 큰 의자, 아주 큰 의자가 있었어요. 이 의자들은 각각 아기곰, 엄마곰, 아빠곰의 것이었어요. 녀자애는 아주 큰 의자에 올라가려다가 그만 떨어지고말았어요. 큰 의자에 올라가니 폭신하지 않아 작은 의자에 옮겨앉았어요. 작은 의자는 참 폭신하고 좋았어요. 그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작은 사발에 있는 죽을 다





먹어버리고 흥이 나서 몸을 흔들거렸어요.

녀자애가 몸을 흔들거리자 의자가 부서져버려 그는 그만 엉덩방아를 찧고말았어요. 그는 의자를 다시 세워놓은후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방에는 아기곰의 작은 침대, 엄마곰의 큰 침대, 아빠곰의 아주 큰 침대가 있었어요. 녀자애는 아주 큰 침대에 누워보았어요. 그러나 너무 넓어 다시 큰 침대에 누워보았어요. 그러나 큰 침대는 너무 높아서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침대에 누웠어요. 작은 침대는 매우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는 작은 침대에서 그만 잠이 들었어요.

녀자애가 잠이 들었을 때 곰 세마리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곰 세마리는 매우 배가 고팠어요. 아빠곰이 죽을 먹으려다가 고함을 쳤어요. “누가 내 죽을 먹었어?” 엄마곰도 자기의 사발을 보고 똑같이 소리쳤어요. “누가 내 죽을 먹은거야?”

아기곰도 소리질렀어요.

“누가 내 죽을 다 먹어버렸네!”



아빠곰이 또 의자를 보고 소리질렀어요. “누가 내 의자를 움직여놓았어?”

엄마곰도 자기의 의자를 보고 낮은 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내 의자에 앉았던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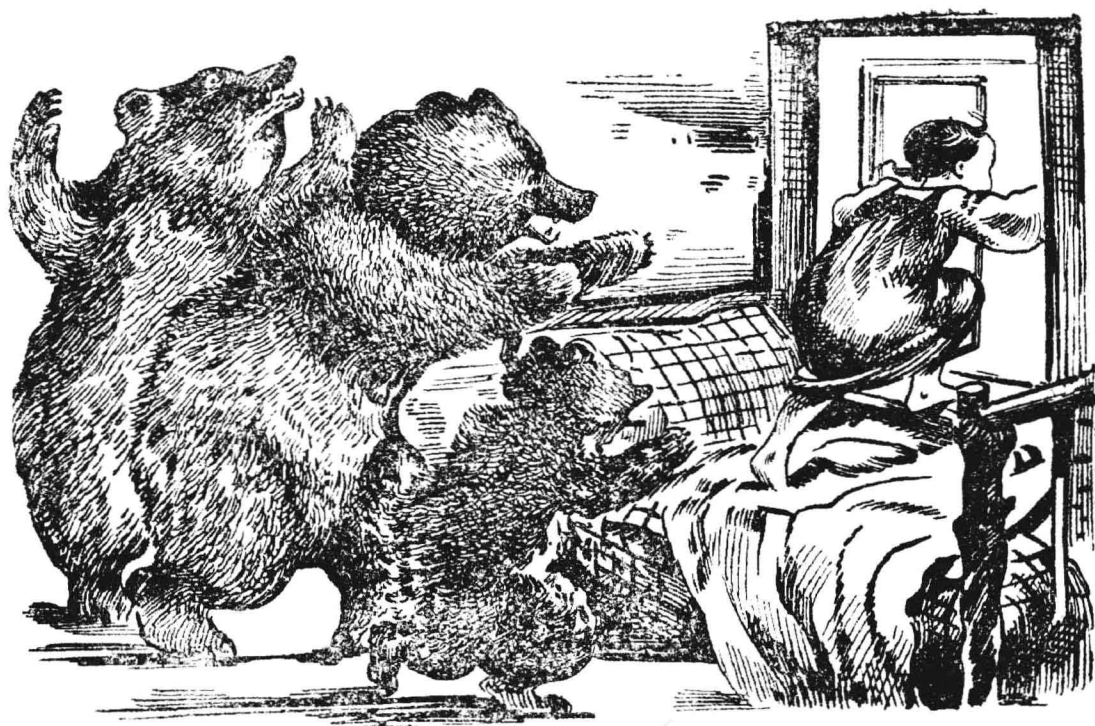
아기곰도 자기의 의자를 살펴보다니 소리쳤어요. “누가 내 의자를 망가뜨린거야!”

그들은 안방에 들어가보았어요. 아빠곰이 큰소리로 “누가 내 침대를 어지럽혔어?”라고 소리질렀어요. 엄마



곰도 낮은 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내 침대를 어지럽혔지?” 아기곰은 걸상을 가져와 자기 침대우에 올라갔어요. 아기곰이 여자애를 발견하고 소리질렀어요. “여기에 있었네! 아빠, 엄마, 여기에 도적이 있어요. 빨리 붙잡아요.”

아기곰이 여자애를 물려는 순간 그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는 곰 세마리를 보고 놀라서 창문으로 달아났어요.





쥐치녀

한 사람이 강가를 거닐다가 까마귀 한마리가 쥐를 입에 물고있는것을 보았어요. 그는 까마귀에게 돌멩이를 뿌렸어요. 돌멩이에 놀란 까마귀가 입에 물었던 쥐를 놓쳐버리자 쥐는 그만 강물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는 쥐를 건져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어요.

“아참, 이 쥐가 여자애로 변하면 좋으련만...”

말이 떨어지기바쁘게 쥐는 여자애로 변했어요.

여자애는 어느덧 커서 어른이 되었어요. 그는 여자애에게 물었어요.

“넌 누구와 결혼하고싶느냐?”

여자애는 “전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과 결혼할래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는 해에게 물었어요. “해야!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에게 시집가겠다고 하는구나. 네가 가장 힘이 센데 내 딸과 결혼하렴!”

해는 “제가 제일 힘이 센게 아니예요. 먹장구름은 저를 가릴수 있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먹장구름을 찾아갔어요.





“먹장구름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니 내 딸과 결혼하렴!”

먹장구름은 “아니예요. 바람은 저를 흩어지게 할수 있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리하여 그는 또 바람을 찾아갔어요.

“바람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니 내 딸과 결혼하렴!”

“아니예요. 산은 저를 가로막을수 있어요.” 바람이 대답했어요.

그는 또 산을 찾아갔어요.

“산아, 산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니 내 딸과 결혼하렴.”

“아니예요. 큰쥐가 저보다 더 힘이 세요. 큰쥐는 산에 구멍을 뚫을수 있어요.” 산의 대답이였어요.

그리하여 그는 큰쥐를 찾아갔어요.

“큰쥐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니 내 딸과 결혼하렴!”



큰쥐는 그의 청구에 동의했어요.

그는 집에 돌아가 여자애에게 말했어요. “애야, 큰 쥐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는구나. 큰쥐는 산에 구멍을 뚫을수 있고 산은 바람을 막을수 있고 바람은 먹장구름을 흩어지게 할수 있고 먹장구름은 해를 가리울수 있단다. 큰쥐가 너랑 결혼하겠다는구나.”

이 말을 들은 여자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어떡하죠? 제가 어찌 쥐에게 시집갈수 있겠어요.”



그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글쎄 말이다. 만약 내 딸이 다시 쥐로 변하면 좋으련만!”

그러자 녀자애는 다시 쥐로 변했어요. 쥐로 변한 녀자애는 큰쥐에게 시집갔어요.



늑대와 할머니

며칠 굶은 늑대 한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먹이를 찾고있던중 한 마을어구에 이르렀어요. 이때 어떤 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할머니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자꾸 울면 늑대 먹이로 던져버릴거다!”

이 말을 들은 늑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집 창문 밑에서 할머니가 아이를 던져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도록 기다려도 할머니는 아이를 던져주지 않았어요. 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귀여운 아가야, 울지 말어라. 할머니는 절대 너를 늑대에게 던져주지 않을거다. 늑대가 오면 우리 함께 때려죽이자꾸나.”